

신광

PORTFOLIO

약 력

이름: 신 광 (1980년 생)

국적: 중국

현 연변대학교 미술대학 재직

TEL: 86)186-2698-9118

e mail: 2723885520@qq.com

학력

- 2004년 연변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학과 졸업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2017년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예술협동과정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전시

- 2010년 개인전-출입국사무소 프로젝트 (성균갤러리-서울)
- 2015년 개인전-이사와 이주 (스페이스 월릴앤딜링-서울)
- 2012년 단체전-여의도 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 (일민미술관-서울)
- 2014년 단체전-제3의 국적 (아마도예술공간-서울)
- 2015년 단체전-동북아시아 지역사와 시대정신 (산시성미술박물관, 구방무안현대예술관-중국 시안)
- 2016년 창원조각비엔날레 (성산아트홀-창원)
- 2017년 단체전-C-Town 별일 없는 동네(대림동-서울)
- 2019년 Nowhere Better Than Here(LA)
- 2020년 아마도에뉴얼날레 (스페이스 아마도-서울)

노트

나는 중국의 연길이라는 도시에서 조선족으로 태어났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의 하나인 조선족으로 살아 왔었다. 유학을 목적으로 시작한 11년 동안의 한국생활은 신분의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 문화 안에서 나는 같은 민족으로 생각되지만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았었다. 2018년 나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 복귀는 신분의 회귀로 이어진 것 같지 않았다.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서로 다른 문화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신분(혹은 정체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나의 정체성은 중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이중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이중적인 정체성은 본인이 생활하는 장소, 시간, 문화에 따라 그 성질이 바뀐다. 중국에서는 중국인이지만 소수민족이고, 한국에서는 같은 민족이지만 외국인이다. 또한 본인은 어려서부터 자라온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조선족 학교를 다니면서 민족교육을 받았고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면서 마르크시즘과 결부된 중국 사회주의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물론 나의 대학 시절은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던 시기라, 교육 외 적으로 나는 물질적인 자본주의를 체험 할 수 있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나의 한국 유학생생활을 통하여 나는 한국의 교육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본인은 매우 다른 교육 경험들을 경험하게 된다. 어찌 보면 상충되는 이러한 교육과정들이 나에게서 매우 연속적인 과정으로 경험되면서 일관성, 이질성 또는 복합성에 대한 차별화된 경험과 시각을 형성하게 되었다.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정체성 형성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며,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동질감 또는 이질감에 대한 나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양식(Form)> 2008

나는 한국에 도착해서 중국에서 겪지 못했던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경험은 출입국 사무소였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순서를 기다리게 되고 여러 가지 심사를 받아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증명들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출입국 사무소는 내가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한국과의 동질감이 깨지기 시작하고 정체성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한 곳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원인으로 나의 첫 두 작업은 출입국 사무소라는 한국인에게는 낯선 외국인에게는 익숙한 특수한 장소로부터 시작된다.

이 작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여러 가지 양식 (EX: 국적상실 신고서, 신원보증서, 사증발급신청서 등)들을 재해석한 작업이다. 우선 양식들은 확대 복사된다. 그 다음 그 뒤에 파스텔로 칠한다. 다음 확대 복사된 서류는 종이보드에 부착하고 펜으로 서류의 내용들을 새겨 종이보드에 그 흔적을 남긴다. 이 파스텔 흔적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것이다. 이 부분이 내가 이 재료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어쩌면 이 서류들을 접하는 순간 거부감을 느꼈던 것 같다. 생소하게 다가왔고 잘못 쓰는 것이 두려웠다.



국적상실 신고서

필수입자	필수번호	처리확인	
신고인	성명(한글)	(한자) 성별 []남 []녀	사진 3.5cmX4.5cm
	성명(외국명)	생년월일	
	출생지	외국국적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등록기준지			

대한민국 국적상실일

국적상실 사유	외국국적 취득	국적일 취득일
	대한민국국적 취득 후 기간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내 외국국적 미포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인 []주최 []국적행위 []기타
	국적선택명령불이행	국적선택명령일 국적선택명령 사유
	국적상실결정	대한민국국적취득일 국적상실결정 사유

관계	성명	직업	국적	주소
가족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인 (별정대리인) (인)

년 월 일

법무부장관 귀하

- | | | |
|------|---|-----------|
| 첨부서류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210mmx297mm (보통용지(2종) 70g/㎡)

신원보증서

1. 피보증외국인

성명	Surname	漢字	성	남
별명	Given names		별	여
생년월일		국적	국적번호	
대한민국내 주소			연락번호	
직업목적				

2. 신원보증인

가. 인적사항

성명		漢字	성	남
국적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국적	연락번호	
주소				
근무처				
피보증외국인과 관계		직위		
근무처		직고		

- 나. 보증기간
- 부터 까지
- 다. 보증내용
- 제후상 제한영구를 준수하도록 한다.
 - 출국외국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제후 또는 보호상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귀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의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신원보증인(서명 또는 인)

23235-18721 일
98. 1. 22. 승인

210mmx297mm
(일반용지 80g/㎡)

양식(form)-국적상실 신고서, 신원보증서

[별지 제21호 서식]

사증발급인정신청서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신청번호(APPLICATION No.) : 제 _____ 호

○ 피초청자(INVITEE)

사 전 PHOTO 35×45mm	성명 NAME IN FULL	한자성명 漢字姓名	
	성별 GEN- D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직장 및 직위 PLACE & POSITION OF EMPLOYMENT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

○ 초청자(INVITER)

성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GENDER	국적 NATIONALITY	주민등록(외국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직장 및 직위 PLACE & POSITION OF EMPLOYMENT			
주소 ADDRESS		전화번호(TEL)	휴대전화(CELL PHONE)
		이메일(E-MAIL)	

[행정정보 공개이용 동의(Consent for show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한 정부서류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이용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under E-government Law, section 21, article 1.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부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I agree) (I disagree. I will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myself)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seal) deputy of applicant (sign/seal)

○ 초청사유(REASON FOR INVITATION) :

○ 초청기간(DESIRED PERIOD OF INVITATION) :

○ 예정 근무처(WORK AT)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pursuant to Paragraph 2, Article 17 of the provisions for enforcement of the Immigration Law.

신청일 : 200 _____ 신청인 서명(SIGNATURE)

(DATE OF APPLICATION)

공용관 FOR OFFICIAL USE ONLY

인정 사항	결 제	의 견
인경번호		
사증종류 : 단수, 복수		
재류자격		
재류기간		
참고사항	가. 부	
접수번호	• 화 일 :	
접수일시	• 범 령 사 실 :	
담 당 자	• 일 국 규 제 :	
	• 출 입 국 사 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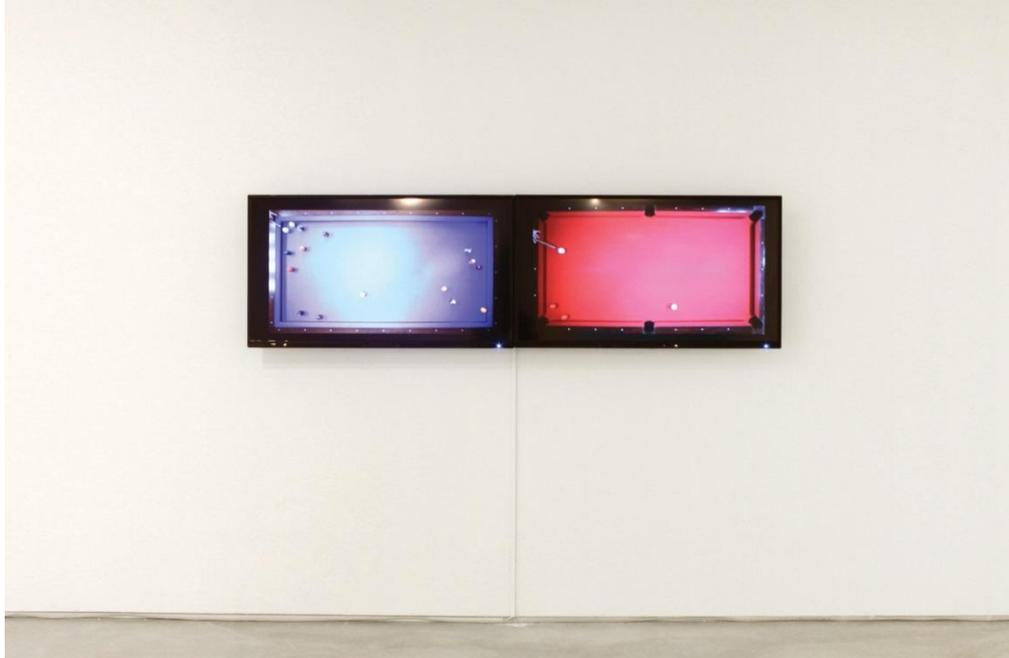
당구- <16 ball>, <4 ball> (2012)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듯이 당구 또한 하나의 스포츠인 동시에 사람들이 즐기는 오락종의 하나이다. 그러나 당구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게임방식과 룰이 다를 것이다. 본인의 경험적인 예로 중국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당구는 포켓볼이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당구는 삼구나 사구이다. 중국에서 사구는 접하기 힘든 반면 한국에서 포켓볼은 흔하게 접할 수는 있으나 주로 포켓볼은 여성들이나 남녀가 혼성으로 많이 즐기고 남성들은 주로 사구나 삼구를 선호한다. 이렇게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차이점은 본인에게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 작업은 우선 포켓볼과 사구라는 당구의 두 가지 게임 룰을 혼합해서 새로운 두 개의 당구 게임 (16ball과 4ball)을 만든 것이다. 첫 번째는 포켓볼 당구대위에서 사구 공으로 게임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구 당구대위에서 포켓볼 공으로 게임을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원래의 게임 룰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전혀 다른 게임 룰을 만들어 게임을 진행한다. 이렇게 게임 도구는 원래 그대로의 것을 사용하지만 그 두 게임을 섞으면 전혀 다른 게임으로 바뀐다.

본인은 이 새로운 게임은 본인의 정체성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된다. 본인은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중국국적의 소유자이지만 다른 민족이고 한국에서는 같은 민족이지만 외국인이다. 이런 정체성의 뒤섞임은 상대적인 문화권 안에서 두 게임이 뒤섞여 전혀 다른 게임을 만들어 내듯이 전혀 다른 본인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당구- <16 ball>, <4 ball> (2012)



게임방법

<16 ball>

<16ball>은 원 <4구>당구대 위에서 <포켓볼> 공으로 게임을 한다. 공은 1~15의 숫자로 된 15개의 칼라공과 하나의 흰색 수구(큐로 타격하는 공)가 있다.

※두 주자는 각각 수구를 타격하여 순번을 정하는데 수구가 쿠션과 먼 주자가 포켓을 한다.

※수구를 타격하여 수구가 쿠션을 한번 맞히고 칼라 공을 맞혀야 한다.

※단 칼라 공을 맞힐 때 1~15번의 순서대로 맞혀야 한다. 15번 공을 먼저 맞힌 주자가 승리한다.

※숫자 공을 못 맞히거나 숫자 공을 맞히기 전에 쿠션에 1번 이상 맞히거나 숫자를 순서대로 못 맞히거나 하는 경우 모두 파울로 인정돼 다음주자로 교체 진행한다.

<4 ball>

<4ball>은 원 <포켓볼>의 당구대 위에서 <4구> 공으로 게임을 한다. 공은 2개의 빨간 공과 2개의 흰 공이 있다.

※두 주자는 적구를 넣을 구멍의 순서를 정하고 수구로 적구를 타격하여 적구를 정한 순서에 따라 차례로 구멍에 넣는다. 들어간 적구는 다시 원 위치에 놓고 계속 게임을 진행한다. ※적구와 수구는 주자가 매번 타격하기 전 임의로 정한다. 먼저 적구를 모든 구멍에 넣는 주자가 승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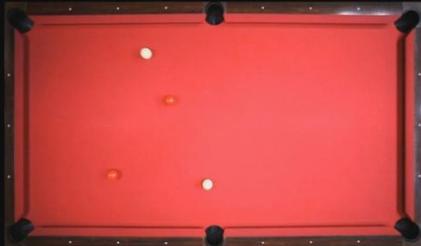
※두 주자는 각각 수구를 타격하여 순번을 정하는데 수구가 쿠션과 먼 주자가 포켓을 한다.

※두 명의 주자는 각자 빨간 공과 흰 공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한다.

※수구로 적구를 타격하여 적구를 구멍에 넣는다. 단 수구가 적구를 타격하기 전에 수구가 쿠션을 1회 이상 맞히거나 수구가 적구를 타격한 후 적구가 쿠션을 1회 이상 맞혀야 한다.

※적구를 구멍에 넣지 못하거나 적구가 정한 순서대로 구멍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파울로 인정돼 주자를 교체한다.

4 BALL



4 ball
Shen Guang

4BALL, 영상(스크린샷), 00:26:42

16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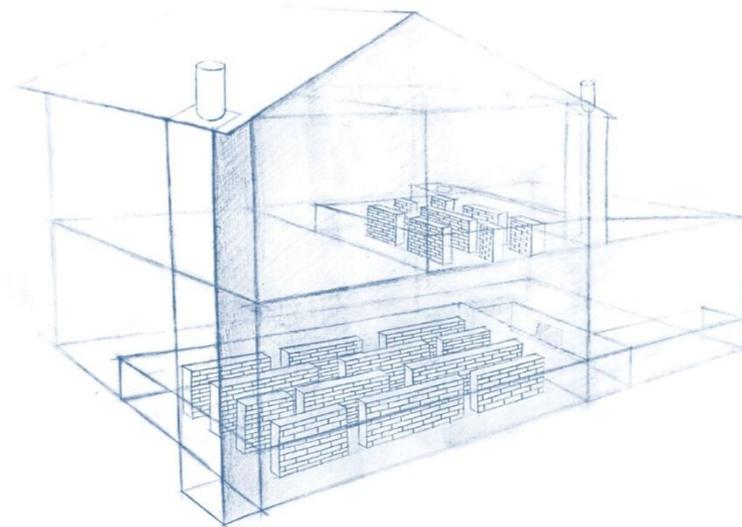
16 ball
Shen Guang

16BALL, 영상(스크린샷), 00:10:10

<이사와 이주> (2012~)

이사와 이주

Move & Emigration



<이사와 이주>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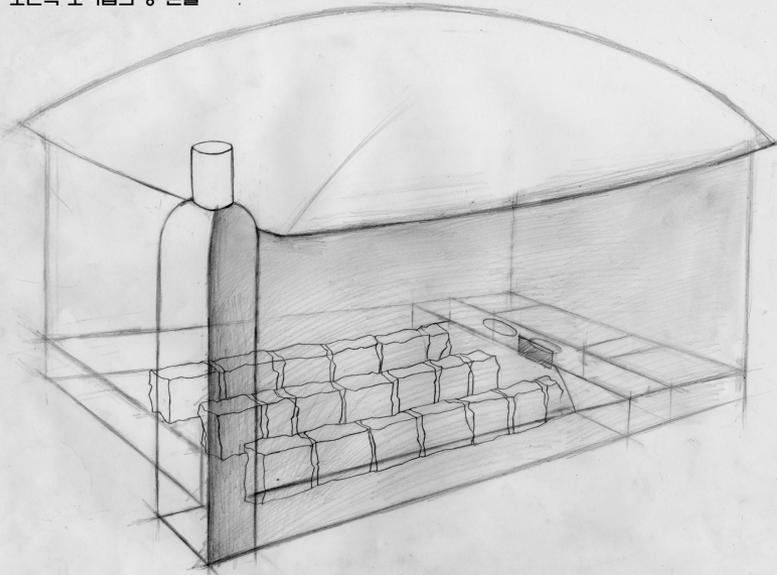
이사'와 '이주'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본인의 이사과정은 이주를 동반한다. 또한 본인은 이러한 이사과 이주 과정을 통하여 일련의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 작업은 이러한 이사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제일 기본적인 변화, 즉 난방 시스템의 변화로부터 출발한다. 이 작업은 대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집의 난방구조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드로잉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난방시스템을 설명하는 텍스트와 거주한 집과 관련된 이미지들로 구성되었다. 연필로 그린 드로잉 작업은 스캔과 일련의 컴퓨터 작업을 거쳐 다시 프린트되는데 컴퓨터 프린팅이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 목적은 그리기라는 전통적인 매체가 가지는 '유일무이'에 대한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프린트 된 드로잉은 그 난방방식을 설명하는 텍스트와 그 집과 관련된 다수의 이미지들과 같이 구성되는데 이런 이미지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 이미지와 온라인 공간에 떠도는 이미지를 수집한 것들이다.

본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두 9개의 집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 중에 중국에서 여섯 개의 집을 거쳐 왔고 한국에서 총 세 개의 집에서 살았었다. 이 집들의 난방시스템은 지역과 시간, 문화적 특성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본인이 유년시절에 살았었던 집들은 우리가(중국조선족) 한반도에서 이주한 탓으로 대체적으로 북방 한민족의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 구조로 형성되었거나 전통적인 중국북방 주택의 난방 형식을 띠고 있다. 본인이 성년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본인은 가족과 함께 중국 북방의 아파트 난방형식을 갖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2007년 본인은 한국유학과 더불어 한국의 난방형식을 경험하게 된다.

기 간: 1980년~1985년

위 치: 중국 룡정시 조양천진 태동촌

난방방식: 북방 조선족 초가집의 통 온돌



기 간: 1980년~1985년

위 치: 중국 룡정시 조양천진 태동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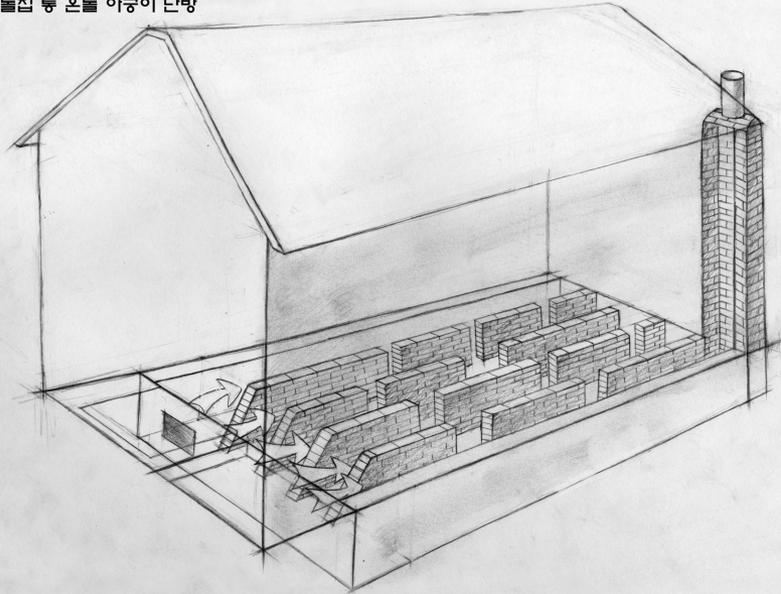
난방방식: 북방 조선족 초가집의 통 온돌

나는 태어나서 룡정시 태동촌에 위치한 조부모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조부모의 집은 전통적인 북방 조선족의 초가집 구조로서 난방 방식은 한반도의 초가집에서와 같은 통 온돌 이다. 차이점은 부엌과 방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구들과 잇닿은 칸막이 벽 밑에 부뚜막을 만들고 솔은 보통 두 개 걸었으며 아궁이에 불을 때면 불길과 연기가 방안의 구들 고래를 지나 굴뚝으로 빠지면서 난방이 되는 방식이다. 내 기억으론 이런 난방방식 때문에 부엌 쪽은 많이 따듯했었는데 부엌이랑 멀어질수록 온기가 덜했다. 그래서 항상 겨울이 되면 가마 목(가마 목은 연변말로 온돌과 부엌이 이어진 곳을 가리킨다.)에 모여 있었다.

기간: 1985년~1987년까지

위치: 중국 연길시 역전가

난방방식: 벽돌집 통 온돌 아궁이 난방



기간: 1985년~1987년까지

위치: 중국 연길시 역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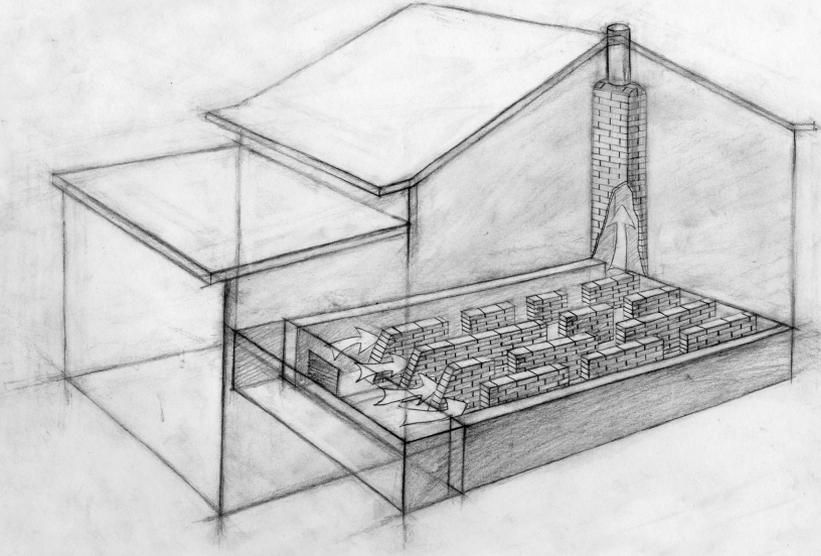
난방방식: 벽돌집 통 온돌 아궁이 난방

1985년 내가 여섯 살 되던 해 부모님은 연길 시내의 단층 벽돌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 해에 나의 동생도 태어났는데 아마도 부모님들은 동생이 태어나면서 한 가족이 같이 살자고 결심하셨던 것 같았다. 외할아버지가 연길 철도에 근무했던 탓에 나의 외가는 기차역 근처에 있었고 우리 집은 외할아버지가 앞마당에 지어준 자그마한 단층벽돌 집이었다. 집은 부엌과 침실이 분리되지 않은 원룸형식으로 되어있다. 입구의 왼편에는 어른 허리까지 파인 부뚜막이 있고 그 앞에는 큰 가마솥이 두 개가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온돌이다. 사실 집이 벽돌로 지어졌다는 부분만 제외하면 이 구조는 친가 할머니의 집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집의 온돌이랑 부엌이랑 이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동생이 화상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엌과 온돌 사이에 어른 무릎보다 조금 높게 칸막이를 만들었다. 당시 나는 어려서 이 구조물을 지나다니기가 너무 어려웠다.

기간: 1987년 4월~1987년 10월까지

위치: 중국 연길시 공원가

난방방식: 벽돌집 통 온돌 아궁이 난방



기간: 1987년 4월~1987년 10월까지

위치: 중국 연길시 공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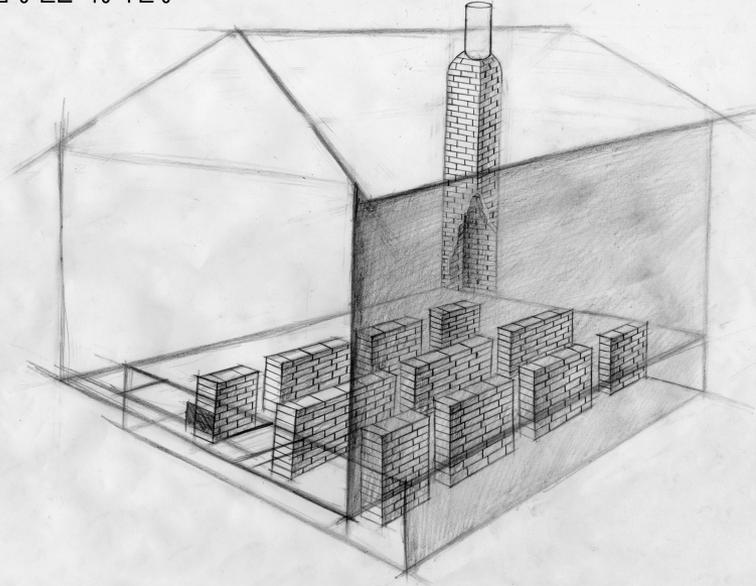
난방방식: 벽돌집 통 온돌 아궁이 난방

1987년 4월부터 우리가족은 6개월 동안의 길지 않은 셋방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 곳이 어머님이 다니는 공장과 가까운 원인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친할머니가 병으로 눕게 되자 부모님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기로 결심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 셋집은 40평방미터 쯤 되는데 출입문을 들어서면 바로 창고가 있고 창고를 통과하여 들어서면 외할아버지가 지어주었던 집과 같은 실내 구조였다. 심지어 난방 방식도 똑같은 형식이였다. 이 집에서 나는 조부모님들이랑 같이 살게 되었다. 할머니는 뇌출혈로 오른쪽이 마비가 오면서 말도 못했다. 그래서 나는 집에 오면 계속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할아버지랑 대화를 했었다. 그때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기간: 1987년 10월~1990년 5월까지

위치: 중국 연길시 하남가

난방방식: 벽돌집 통 온돌 아궁이 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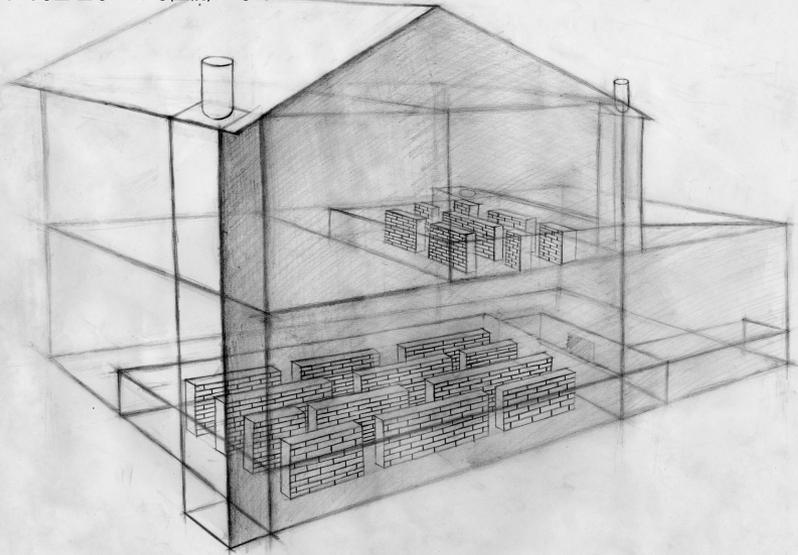
기간: 1987년 10월~1990년 5월까지

위치: 중국 연길시 하남가

난방방식: 벽돌집 통 온돌 아궁이 난방

같은 해 10월 우리가족은 아버지가 공장으로부터 분양 받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내가 태어나서 8년 만에 우리가족은 아버지 재산으로 등록된 집이 생기게 된 것이다. 집의 구조는 외할아버지가 지어준 집과 똑같았고 정확히 그 집을 두 배로 확대해 놓은 듯 했다. 난방 방식 또한 같은 구조였다. 다만 집 앞에는 마당이 있었고 마당의 한 구석에는 흙을 파서 '김치굴'(연변에서 겨울철에 김치나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를 오랫동안 저장해서 먹기 위해 파는 땅굴)을 만들었다. 이 집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병으로 말을 못하게 되면서 나는 할머니랑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아매(할머니의 연변 사투리), 내 꼭 대학에 붙을게, 그때 꼭 오쇼. 예~!" 할머니는 나를 쳐다보면서 머리를 끄덕였다. 결국 할머니는 약속을 못 지켰다.

기 간: 1990년 5월~1997년 4월까지
 위 치: 중국 연길시 하남가
 난방방식: 중국 북방의 전통 '투캉(土炕)'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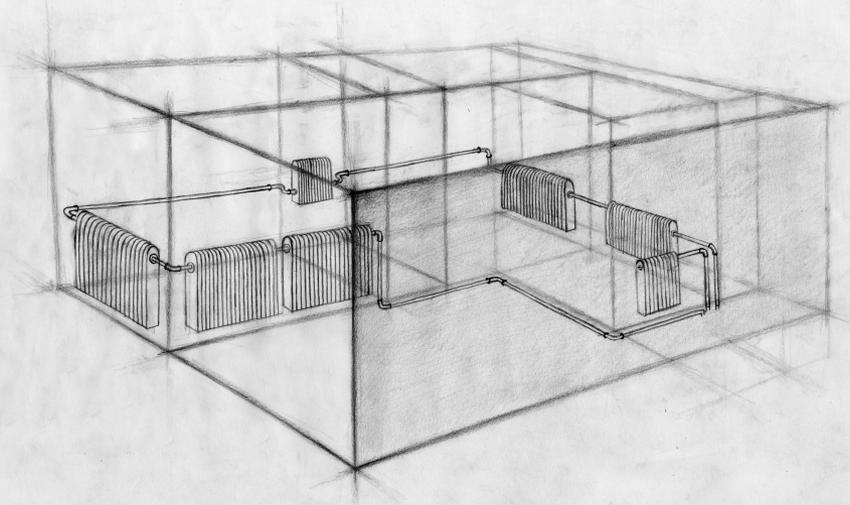
기 간: 1990년 5월~1997년 4월까지
 위 치: 중국 연길시 하남가
 난방방식: 중국 북방의 전통 '투캉(土炕)' 방식

1990년 5월, 내가 11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승진을 하면서 더 크고 더 좋은 집을 배정 받게 되어 우리가족은 이사를 했다. 이 집의 구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집과는 매우 달랐다. 첫 문을 들어서면 복도가 있고 복도의 왼편에는 작은 창고가 있고 복도를 통과하면 작은 공터가 있는데 그 공간에는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1층으로 들어가는 집 있었다. 통으로 된 1층과 2층은 각각 방 두 개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난방은 중국 북방의 전통 '투캉(土炕)' 방식이었으며, 아궁이는 1, 2층이 분리되어있어 개별적인 난방이 가능하다. '투캉'은 방을 온돌과 바닥으로 나누는데 온돌은 바닥에서 1미터 안되게 돌출되어 있고 방과 부엌은 분리되어 있다. 이 집에서 친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다. 우리는 주로 1층에서 살았는데 나와 동생, 할아버지가 한방을 쓰고 부모님들이 한방을 썼다. 2층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다.

기간: 1997년 4월~2002년 9월까지

위치: 중국 연길시 하남가

난방방식: 아파트형 라디에이터 스팀난방



기간: 1997년 4월~2002년 9월까지

위치: 중국 연길시 하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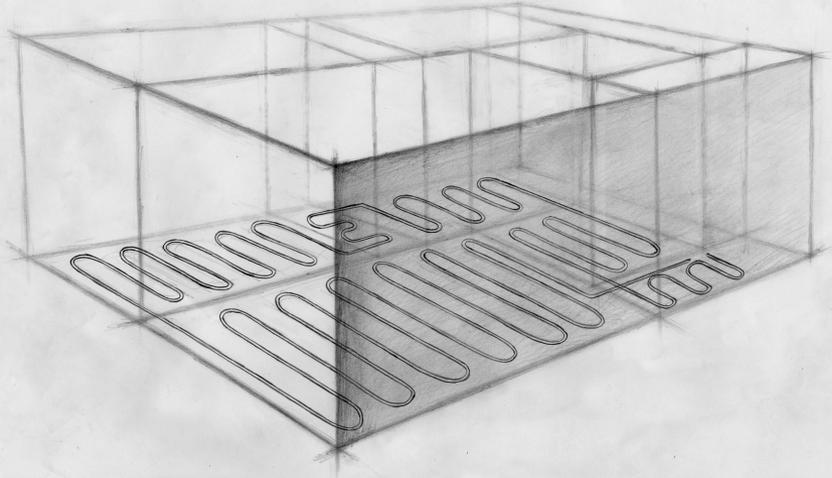
난방방식: 아파트형 라디에이터 스팀난방

1997년 4월 우리가족 4명은 내가 살던 도시의 재개발 열풍과 함께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된다. 이 집은 아버지가 건축회사로 직장을 옮기면서 그 회사에서 지은 첫 아파트이다. 우리는 6층으로 된 아파트의 6층을 분양 받았고 집은 침실3개, 객실 1개, 주방 1개, 욕실 1개 그리고 화장실 1개로 이루어졌다. 난방은 스팀 난방 형식으로 침실, 주방 그리고 욕실에 라디에이터가 하나씩 있고 객실에는 2개가 있었다. 처음 아파트에 이사를 오면서 나는 수세식 번기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 집 근처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다녔는데 집이 아파트인데다 6층이다 보니 너무 불편했다. 이 전까지 내가 살아온 집은 화장실이 없어 불일을 볼 때 집 근처의 공중화장실로 가야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적응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

기간: 2002년 4월~2007년 3월

위치: 중국 연길시 하남가

난방방식: 한국형 스팀 온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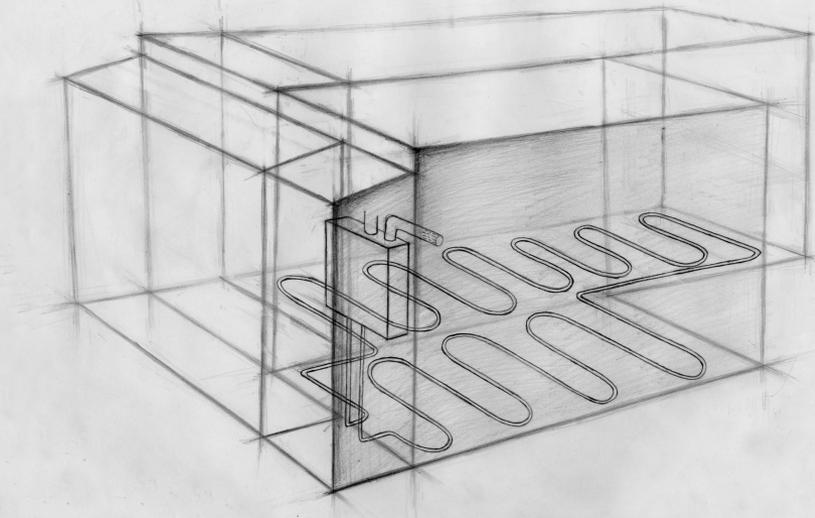
기간: 2002년 4월~2007년 3월

위치: 중국 연길시 하남가

난방방식: 한국형 스팀 온돌형

90년대부터 중국 조선족들 사이에서는 한국으로의 노무수출 붐이 불면서 한국과의 왕래가 빈번해졌다. 따라서 연변 사람들은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와 생활 방식들이 받아들였다. 그 중에 하나가 아파트의 난방방식이다. 2002년 한국식 난방기술이 보급화 되면서 아버지가 집의 난방구조를 한국형 온돌 형 난방 방식으로 개조함으로써 집의 라디에이터가 모두 사라졌다. 난방구조를 바꾸게 된 원인은 겨울이 되면 집이 추워서 난방 방식을 바꾸면 따뜻해 질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난방방식이 바뀌어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내가 한국에 올 때까지 겨울이 되면 추워서 전기장판을 이용하곤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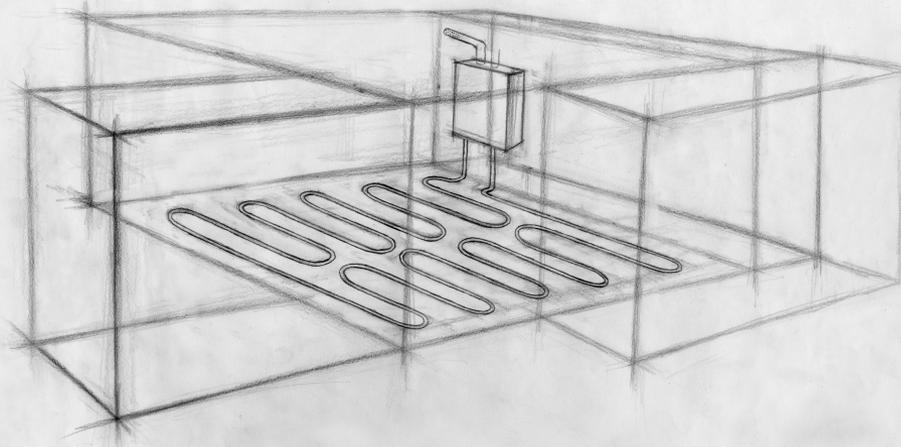
기간: 2007년 3월~2007년 12월까지
 위치: 한국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난방방식: 보일러 스팀 온돌난방



기간: 2007년 3월~2007년 12월까지
 위치: 한국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난방방식: 보일러 스팀 온돌난방

서울 금호동에 있는 사촌 누나의 집은 2007년 3월, 내가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살았던 첫 번째 집이었다. 누나네 집은 1,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의 2층인데 방 두 개와 작은 화장실과 주방이 있었다. 난방 방식은 도시가스 보일러로 중국에서 살던 집에서 이미 경험했던 터라 생소하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의 집은 통일 난방이고 누나네 집은 도시형가스보일러여서 온도를 개인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나의 첫 타향살이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민감했다. 집에서 나갈 때면 보일러, 전기와 같은 것을 체크하는 버릇도 생겼다. 짧지만 큰 경험이었다.

기간: 2007년 12월~2008년 12월까지
위치: 한국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난방방식: 보일러 스팀 온돌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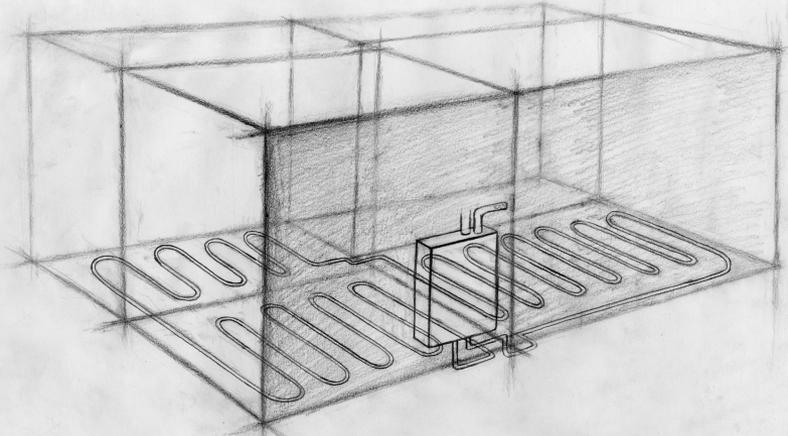


(출입번호) (Application)
대기번호 (Waiting Number)
0275
WAIT : 089
2008년 10월 28일
11시 12분
대기번호 순으로 처리합니다
Please wait for your
number to be called
SIEJIC INC BRANCH
SIEJIC IMMIGRATION OFFICE

기간: 2007년 12월~2008년 12월까지
위치: 한국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난방방식: 보일러 스팀 온돌난방

2007년 12월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면서 우리 가족 셋과 여자 친구는 학교 근처, 혜화동에 위치한 한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 10평방미터 남짓한 원룸은 빌라형 주택의 4층이고 출입문은 좁고 긴 통로로 방과 이어졌으며 방의 다른 편은 화장실과 이어졌다. 이 원룸의 난방방식 역시 도시가스보일러였다. 우리는 맨 손으로 이사를 오다 보니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구해야 했다. 일부는 샀지만 일부는 아버지랑 나랑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이 쓰다 버린 것 중 상태가 좋은 것들을 골라서 주어왔다. 어머니 얘기로는 한국에 온 연변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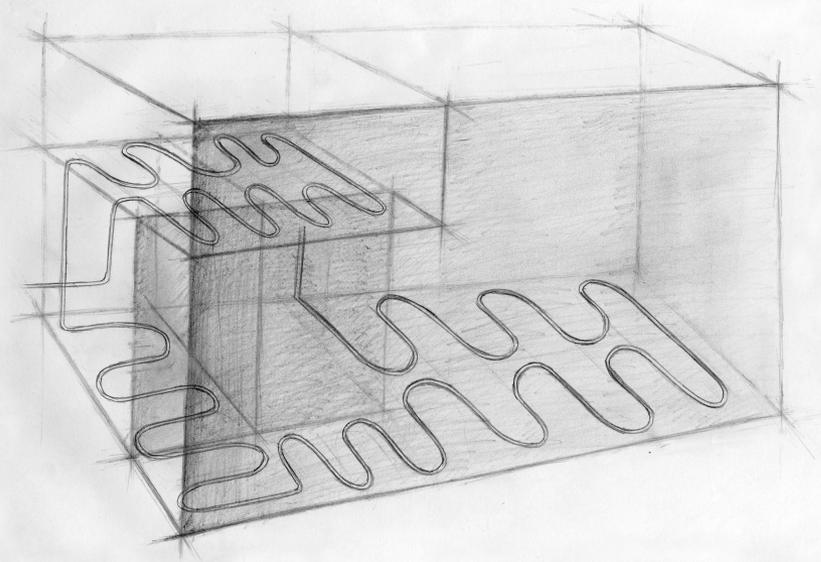
기간: 2008년 12월~2012년 8월
 위치: 한국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난방방식: 보일러 스팀 온돌난방



기간: 2008년 12월~2012년 8월
 위치: 한국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난방방식: 보일러 스팀 온돌난방

2008년 12월 보증금을 빌려줬던 사람이 그 돈을 돌려 달라는 탓에 나는 여자 친구와 서울 청량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1층으로 이사를 했다. 집의 출입문을 들어서면 주방이 있고 주방은 하나의 큰 방과 작은방 그리고 화장실을 연결하는 통로이다. 이 집 역시 도시가스보일러 난방을 사용했는데 보일러가 밖에 있는 탓에 겨울이 되면 보일러가 얼어서 작동이 되지 않았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2008년부터 나는 기존의 페인팅 작업에서 벗어나 나의 정체성에 입각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작업들을 시도한다. 2010년 10월 나는 석사과정을 마쳤고 2012년 6월 결혼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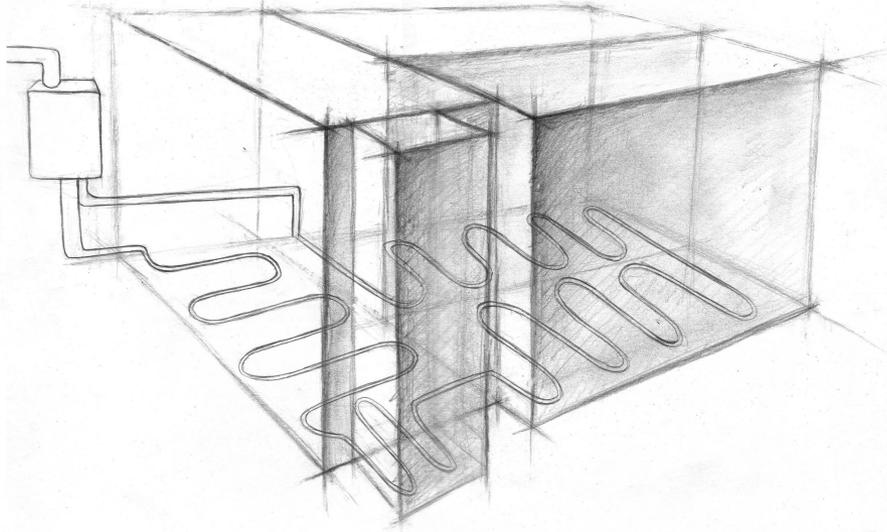
기 간: 2012년 8월~2013년 8월
위 치: 한국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난방방식: 보일러 스팀 온돌난방



기 간: 2012년 8월~2013년 8월
위 치: 한국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난방방식: 보일러 스팀 온돌난방

2012년 8월 나는 결혼을 하면서 와이프와 같이 서울시 구로역 바로 옆에 있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다. 이사를 하게 된 원인은 결혼을 하면서 우리 부부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은 복층구조로 되어 있는데 집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고 1층과 주방은 하나의 큰 방으로 되어있으며 집 안의 계단은 2층으로 연결되었다. 처음에 2층은 침실로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천장이 너무 낮아 고개를 숙여야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2층은 짐 방으로 되어버렸다. 이 집 역시 스팀 온돌난방 구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채광이 좋은 관계로 난방을 많이 틀지 않아도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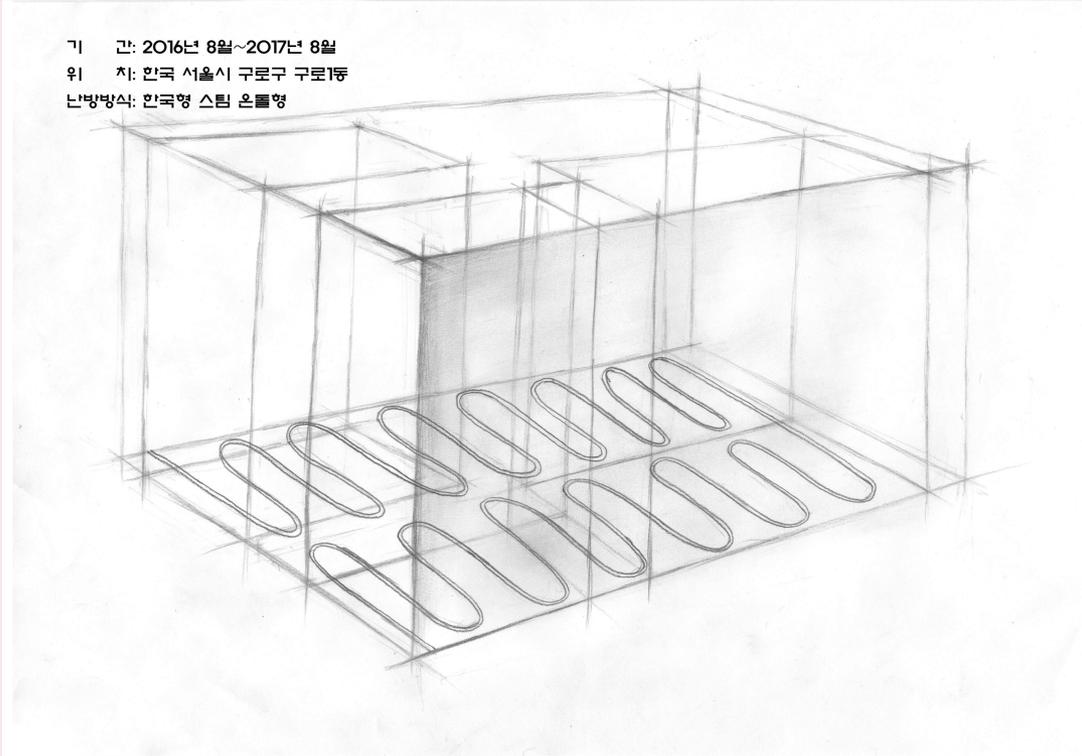
기간: 2013년 8월~현재까지
 위치: 한국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난방방식: 보일러 스팀 온돌난방



기간: 2013년 8월~현재까지
 위치: 한국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난방방식: 보일러 스팀 온돌난방

2013년 8월 우리 부부는 1년간의 오피스텔 생활을 접고 심도림역 근처에 있는 빌라형 주택의 4층으로 이사를 갔다. 이 집은 하나의 주방과 2개의 방, 그리고 하나의 화장실로 되어있다. 집에 들어서면 주방 겸 거실로 된 방이 있고 안쪽으로 크기가 비슷한 방이 두 개가 있으며 출입문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다. 난방형식은 도시가스보일러 난방형식이다. 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오피스텔은 편리한 반면 월세가 비싸다. 더 감당이 안 되는 건 관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은 와이프 회사가 심도림역 근처로 옮겼기 때문이다. 나는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계획에 없었던 박사공부를 시작했고 2년이 흐른 지금도 이 집에서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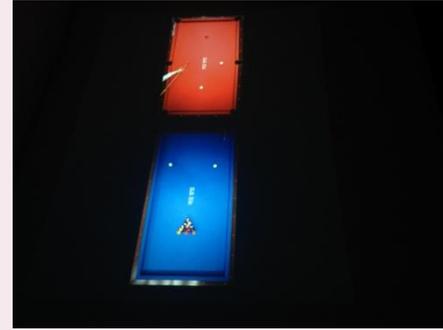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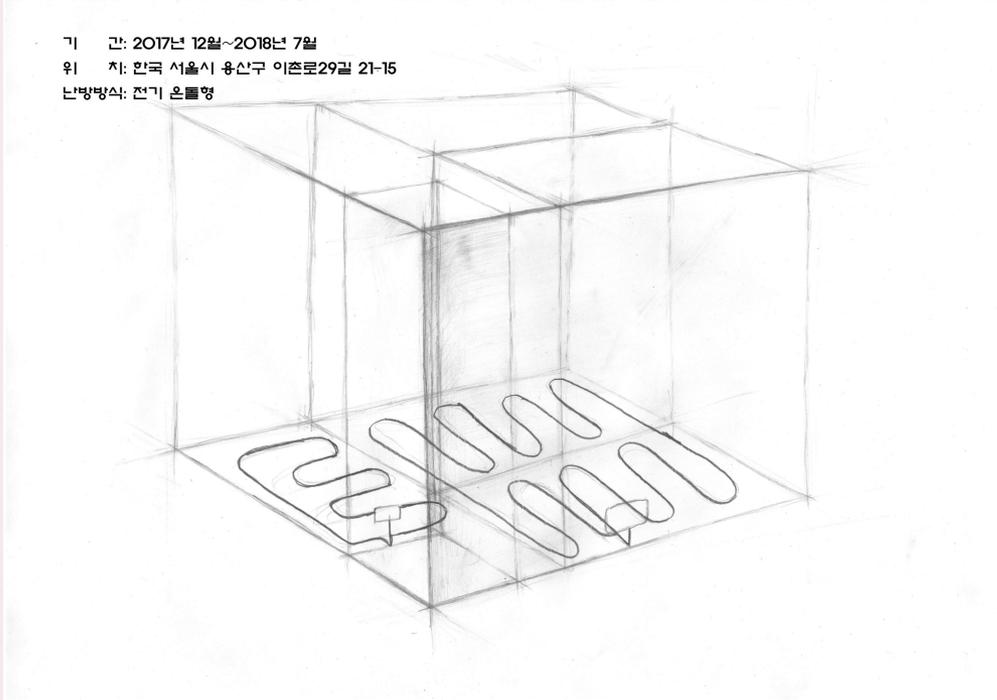
기간: 2016년 8월~2017년 8월
위치: 한국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난방방식: 한국형 스팀 온돌방



기간: 2016년 8월~2017년 8월
위치: 한국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난방방식: 보일러 스팀 온돌난방

2016년 8월 우리 부부는 아이를 위해 환경이 더 좋은 아파트의 10층으로 이사하였다. 한국에서 처음 경험하는 아파트 생활이지만 난방방식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다른 집들과 다를바가 없었다. 집에 들어서면 양쪽으로 작은 방이 있고 입구 통로 맞은 편에 큰 방 하나가 있으며, 통로 왼편으로 주방과 큰 거실이 연결되어 있다. 거실의 다른 편에는 큼지막한 베란다도 있었다. 이 동네가 나에게 준 인상은 삼각형 모양의 고립된 섬 같았다. 왜냐하면 시냇가로 된 철길의 가운데 있었고 세모의 다른 한 변은 도시고속도로가 가로질러 지나갔다. 나는 이 집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 우리 부부는 11년간의 한국생활을 접고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이는 내가 박사공부를 시작할 때 이미 계획에 있었던 일이다.

기간: 2017년 12월~2018년 7월
 위치: 한국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29길 21-15
 난방방식: 전기 온돌방



서울특별시자치행정과 422호 서민

자동차탈소등록사실증명서

제 4117-201806-002631 호

자동차등록번호	5485829	자동차등록지	서울
차량종류	승용차	차량번호	44002
차량기형식	SSD	로컬번호	202A7282821A099912
의역	SSD	로컬번호	202
제원관리번호	1-09611-0028-0000	용도	차량용
최초등록일	2001-06-12	이행유사유기안	
소재지(명칭)	과대우	주민등록번호	871210-1091311
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 방동로23길 21, 206동 214호(우편번호: 0087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5길 11, 110동 214호(우편번호: 00870)	등록사용도	정당용
탈소권유구분	비의(비승차용)		0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라 탈소
 통리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06월 26일

2023
 서울특별시
 2018년 06월 26일
 서울특별시자치행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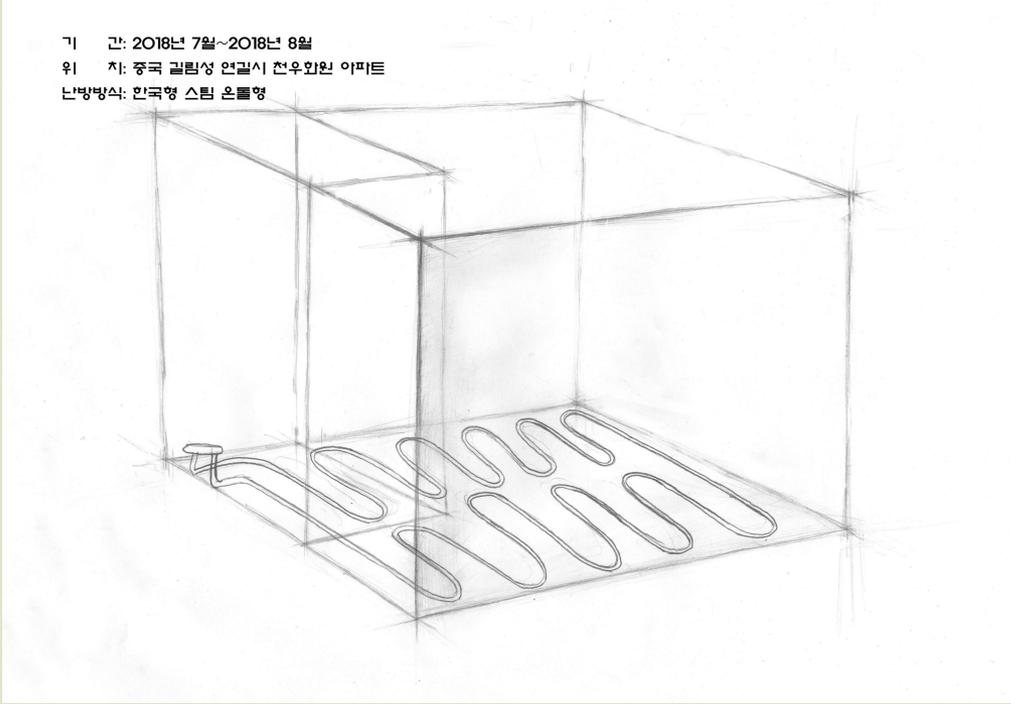
의왕시
 의왕시
 2018년 06월 26일

※ 위쪽의 용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2017년 12월~2018년 7월
 위치: 한국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9길 21-15
 난방방식: 전기 온돌난방

비록 우리 부부가 중국에 돌아가기로 하였지만 나는 배정된 대학 강의가 있었기에 혼자 한국에 남아야 했다. 그래서 2017년 9월 와이프와 아이를 중국에 남겨두고 혼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 돌아와서 나는 약 4개월 동안 친구와 친척들의 집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 그러다 사업하는 친구가 용산역 근처에 임대한 창고 겸 숙소로 거처를 옮겼다. 이 집의 난방방식은 내가 경험한 다른 한국의 집들과 달리 전기온돌 방식이었다. 입구에 들어서면 주방이 있고, 주방 왼편에 크기가 비슷한 방이 두 개 있었다. 그중 한방이 내가 쓰는 숙소였다. 나는 여기서 주어진 강의를 마치고 중국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기간: 2018년 7월~2018년 8월
위치: 중국 길림성 연길시 천우화원 아파트
난방방식: 한국형 스팀 온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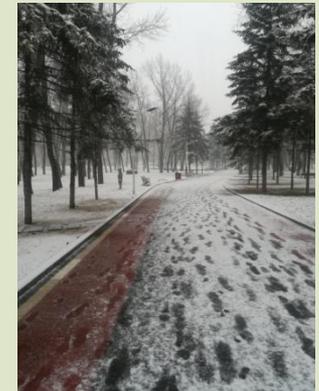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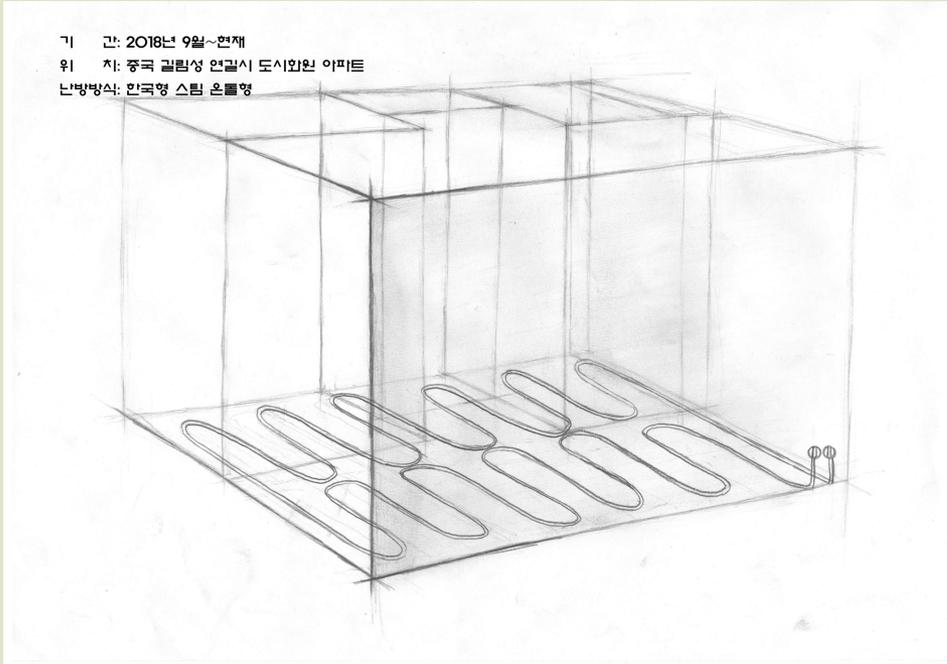


기간: 2018년 7월~2018년 8월
위치: 중국 길림성 연길시 천우화원 아파트
난방방식: 한국형 스팀 온돌형



정확히 나는 11년 4개월 만에 짧지 않은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돌아왔다. 다시 돌아온 고향(그 사이에 몇 번은 왔었지만)은 익숙하면서 낯설었다. 내가 한국으로 가기 전에 살았던 집은 부모님들이 중국 남방에서 장사를 하신다고 처분한지 오래됐다. 그럼에도 내가 이 곳으로 오게 된 이유는 와이프가 여기에 직장을 찾았기 때문이다. 집이 있었기에 우리 세 식구는 한국에 가있는 와이프 친척집에 임시로 살게 되었다. 이 집은 아파트 건물의 15층에 있는 원룸이었다. 이미 이 도시에는 스팀온돌이 보급화되었던 터라 이아파트 또한 스팀온돌의 난방방식이었다. 집의 구조는 사각형 방의 한쪽에 화장실이 잘린 아주 간단한 구조였다. 사실 내가 중국에 돌아오기 전에 와이프는 이미 다른 셋집을 계약한 상태였다. 다만 입주부일이 9월이라 이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 집에 사는 2개월 동안 육아와 취직 두가지네만 전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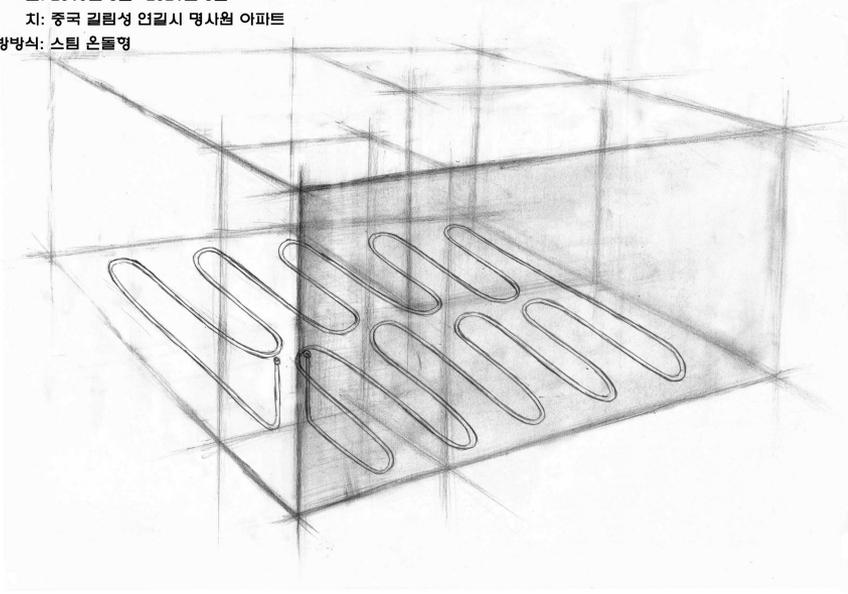
기간: 2018년 9월~현재
위치: 중국 길림성 연길시 도시화원 아파트
난방방식: 한국형 스팀 온돌형



기간: 2018년 9월~2019년 9월
위치: 중국 길림성 연길시 도시화원 아파트
난방방식: 한국형 스팀 온돌형

입주일이 되어 우리 세 식구는 계약대로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다. 이 집은 지은지 10년도 더 넘어 된 아파트의 4층이었다. 난방형식은 역시 스팀온돌난방이다. 집에 들어서면 큰 거실이 있고 거실과 이어진 오른쪽에 주방이 있었다. 주방 옆에 작은 방이 있고 거실의 한 쪽에 화장실과 큰 방이 있었다. 비록 월세집이지만 중국에서 처음으로 나의 집이 생긴 셈이다. 입주하면서 딸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2019년 1월 나는 대학교에 직장을 찾았다. 점차나는 이 도시, 이 나라, 이 환경을 적응해 가고 있다는 감정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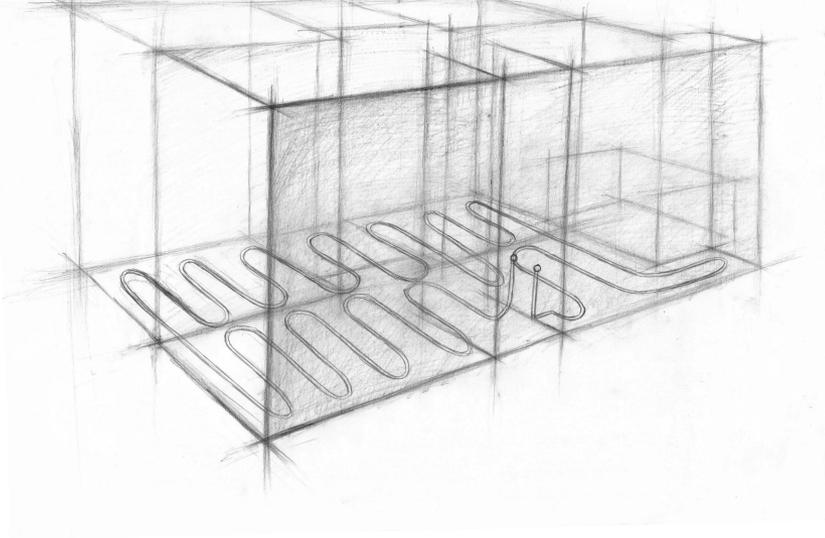
기간: 2019년 8월~2021년 8월
위치: 중국 길림성 연길시 명사원 아파트
난방방식: 스팀 온돌형



기간: 2019년 8월~2021년 8월
위치: 중국 길림성 연길시 명사원 아파트
난방방식: 스팀 온돌형

전에 살았던 집의 노화된 인테리어에 불만이 있었던 우리 부부는 1년만에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원 집에 비하여 크기는 작았지만 깨끗한 인테리어에 만족하여 입주를 결정했다. 사실 우리 부부는 이미 담보대출로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건축시공 완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이 월셋집을 구했다. 스팀 온돌형 남방구조인 이 집은 거실, 침실, 화장실이 각각 하나씩 있고 주방은 거실과 연결된 출입문 오른쪽에 있었다. 사실 이 아파트는 우리 부부가 다녔던 대학교-연변대학교 예술학원 옛터에 지어졌기에 사는 동안 가끔씩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옛 추억들이 스쳐지나가곤 했었다. 그러나 그 친근함과 연결된 장소래야 고작 학교정문 출입로 뿐이었다.

기 간: 2021년 8월~현재
 위 치: 중국 길림성 연길시 잉글랜드타운 아파트
 난방방식: 스틱 온돌형



기 간: 2021년 8월~현재
 위 치: 중국 길림성 연길시 잉글랜드타운 아파트
 난방방식: 스틱온돌형

구입한 아파트가 완공되어 우리 부부는 키를 받았다. 코로나 상황에서 장장 1년간의 인테리어를 거쳐 우리는 새 집에 입주하였다. 전적으로 아내의 노고와 디자인적 미감이 반영된 인테리어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작은 현관이 있고, 거실과 주방은 연결된 구조로 디자인 되었다. 현관과 마주한 화장실 양측에 두개의 침실이 있다. 작은 침실은 딸아이의 방, 큰 침실은 우리 부부의 방으로 인테리어를 했다. 거실의 북쪽에 연결된 개방된 베란다에 테이블을 두어 다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마 오랫동안 이사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이 작업의 다음페이지는 언젠가 될 지 궁금하기도 하다.



전시 이미지, 2023년, 평화문화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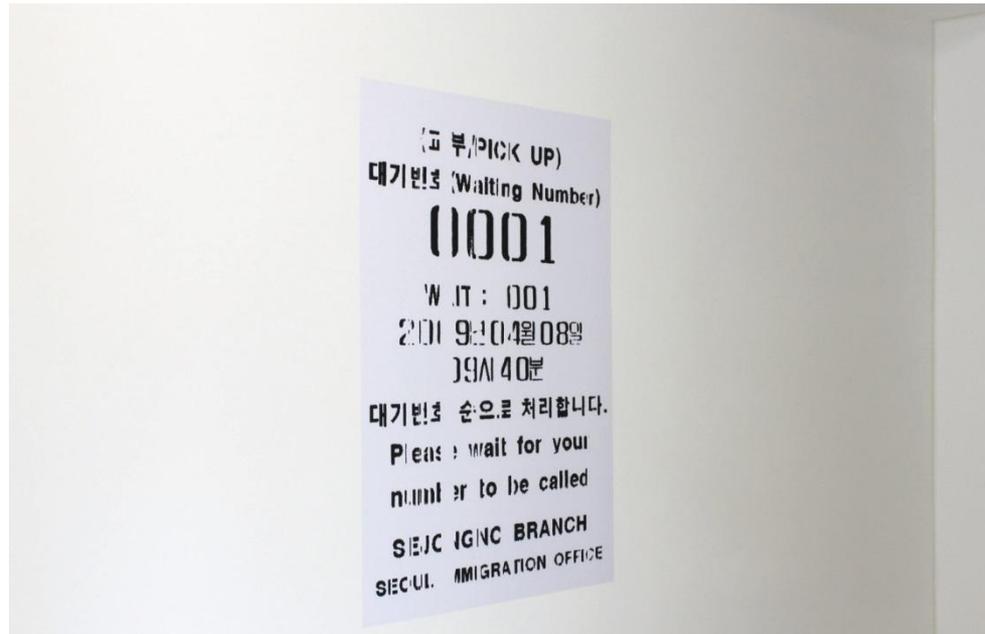
< 대기번호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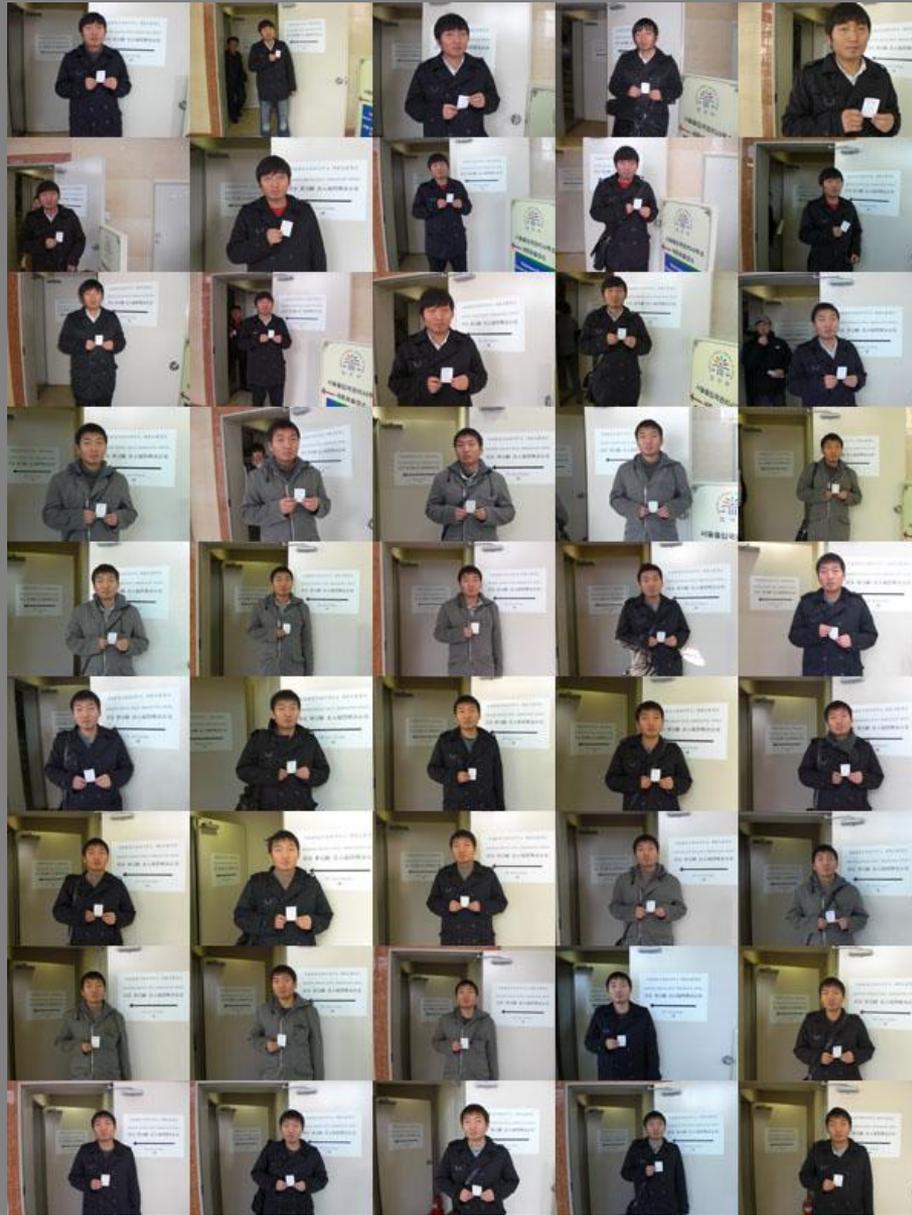
이 작업은 본인이 출입국사무소에서 매일(공휴일 제외) 방문해서 직접 뽑은 대기번호표이다. 이 행위는 1년 동안(2008.11.1~2009.10.31)진행되었다. 아래 이미지들은 뽑은 번호표의 일부이며 2009.3.13부터 번호표발급기가 바뀌는 관계로 번호표의 품도 바뀐다.

이 작업 역시 '양식' 작업과 마찬가지로 출입국사무소를 작업의 내용과 장소로 한다. 다른 점은 대기번호표를 뽑고 사진을 찍는 행위가 작업으로 되는 것이다. 결과물들은 번호표와 슬라이드 형식으로 편집된 사진영상으로 보여지게 된다. 번호표는 출입국사무소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등 여러 곳에서 많이 쓰인다. 그러나 그 장소가 다름에 따라 기다리는 목적 또한 각각 다르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인 심사를 받는 입장이며 따라서 자기 순서를 기다린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심사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본인은 1년간의 번호표를 뽑는 지속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 관계를 부정하려 한다. 즉 나는 번호표를 뽑지만 기다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번호표를 뽑는 행위의 목적은 심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본인이 그 시간에, 그 장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물로 대체된다.

<대기번호표>

2008.11.1~2009.10.31





<대기번호표>-사진



<대기번호표>-디스플레이 장면

< 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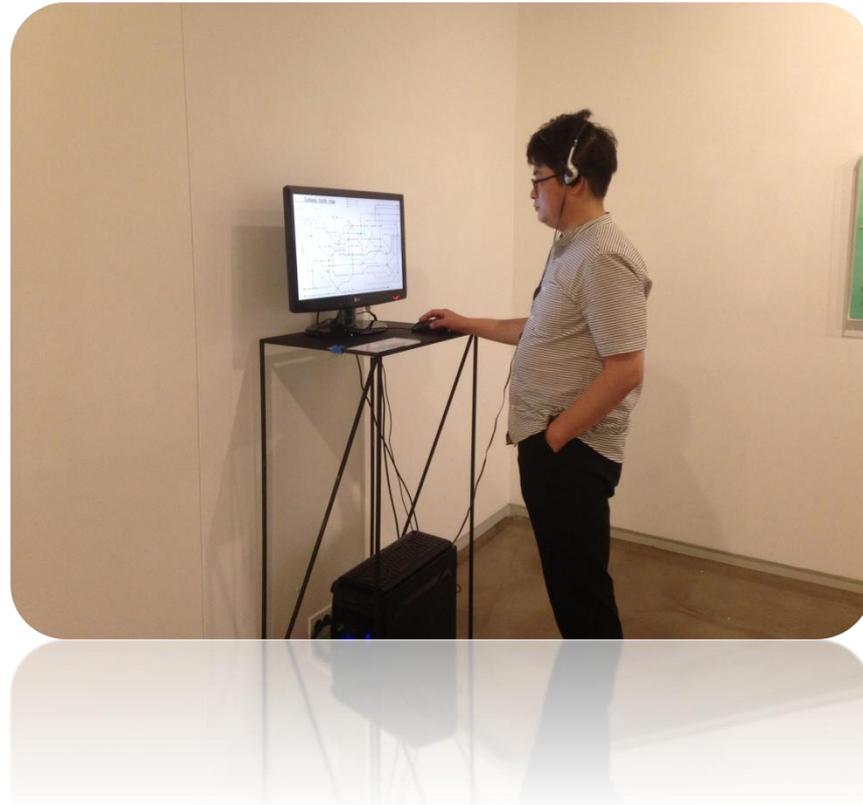
이 작업은 본인이 한국에 도착한날 2007년 3월 13부터 2010년 3월 13일까지 매일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와의 환율을 계산한 수치를 영상으로 편집한다. 수치는 날 자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되며 환율이 200을 넘으면 영상이 빨간색으로 번쩍인다.

본인이 이 작업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환율과 나와 같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조선족교포들의 관계이다. 대다수 한국에 오는 조선족들이 한국에 오는 목적은 돈이다. 공부를 목적으로 유학을 온 나에게도 일상생활에서 돈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고민이다. 따라서 환율의 승낙은 우리의 일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생활이었다. 위에 이미지와 아래 이미지의 수치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2008년의 경제위기로 인해 본인이 한국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환율의 낙폭이 엄청나다. 따라서 조선족들이 한국 진출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고 한국에 있는 조선족인 들의 생활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여기까지 본인이 이 작을 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



<환율>, 2009년, 1채널 영상

<지하철 노선도>



작품설명

이 작품은 본인의 한국에 대한 경험을 지하철 노선도라는 가장 흔한 교통수단을 소개하는 map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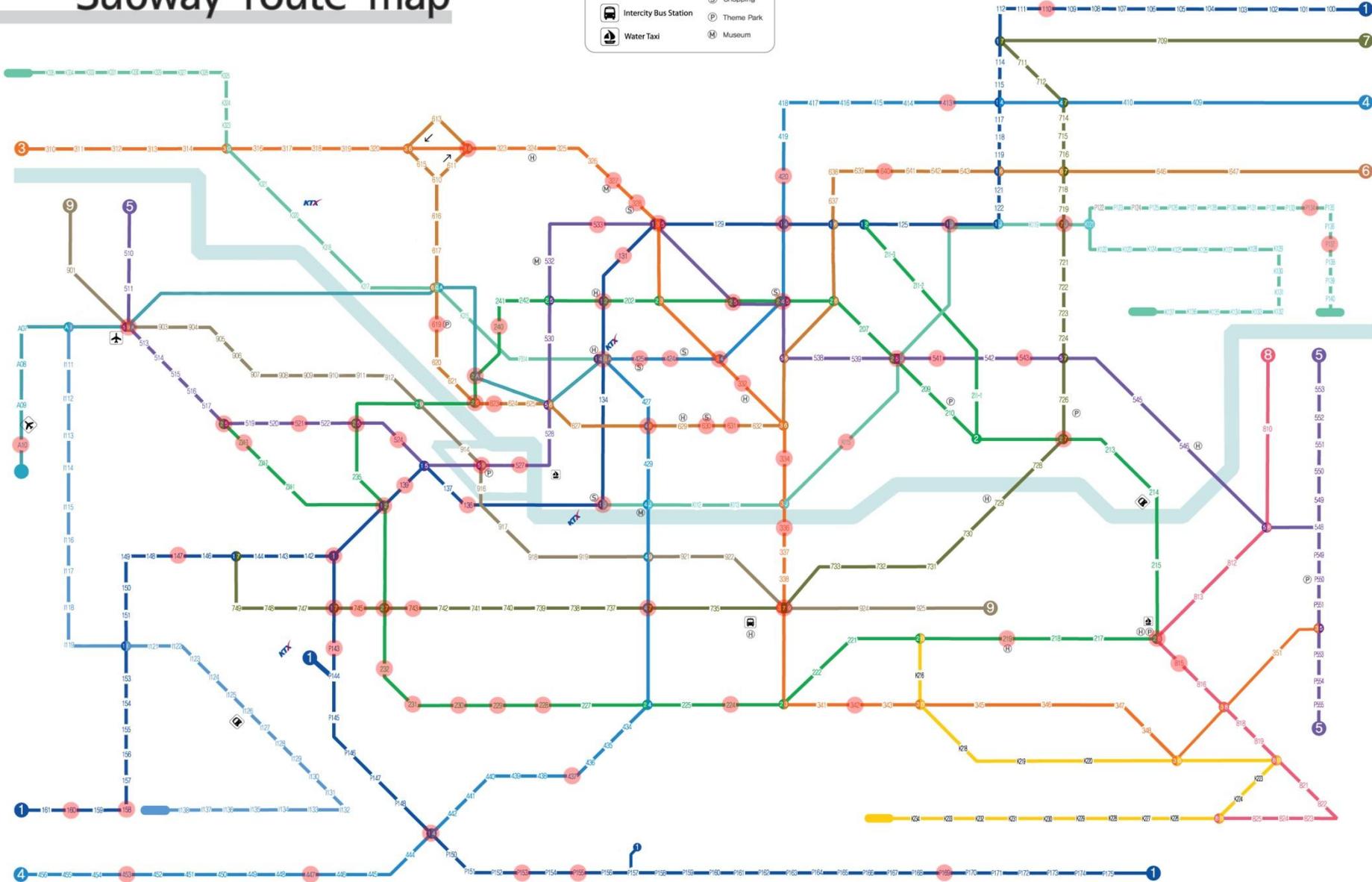
우선 지하철 노선도의 모든 한글 명칭을 지워버리고 각 역의 해당 숫자들로 지하철 노선도를 재 디자인 한다. 이 과정은 내가 중국에서 갓 서울에 도착한 중국인 친구를 만난 경험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 친구가 한글을 모르는 관계로 우리는 지하철역의 해당 숫자를 주고받으며 만날 장소를 정했다.

그 다음 내가 가보았던 역마다 그 역에 대한 인상을 짙막한 사운드로 녹음하였다. 이 사운드는 모니터의 마우스 이미지가 지하철 노선도의 해당 역에 중첩되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된다. 이는 나의 경험을 체험적으로 관객과 공유하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Subway route map

KTX Korea Train Express

- Airport
- Intercity Bus Station
- Water Taxi
- Deluxe Hotel
- Shopping
- Theme Park
- Museum



<보이지 않는 경계> (2015)

보이지 않는 경계

이 작업은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통한 체험을 전제로 한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통하여 체험을 진행한다.

체험 방법1

앱스토어를 통한 어플 다운로드
앱스토어를 실행하고 '보이지 않는 경계'를 검색한다.
어플을 다운 실행한다.
스마트기기의 블루투스 기능을 실행시킨다.
체험을 시작한다.

스마트기기의 대여를 원할 경우 사무실에 문의

체험방법2

QR코드 스캔을 통한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 어플을 실행시킨다.
검색창 우측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클릭한다.
QR코드 검색을 클릭한다.
QR코드 스캔을 통하여 어플을 다운 실행한다.
스마트기기의 블루투스 기능을 실행시킨다.
체험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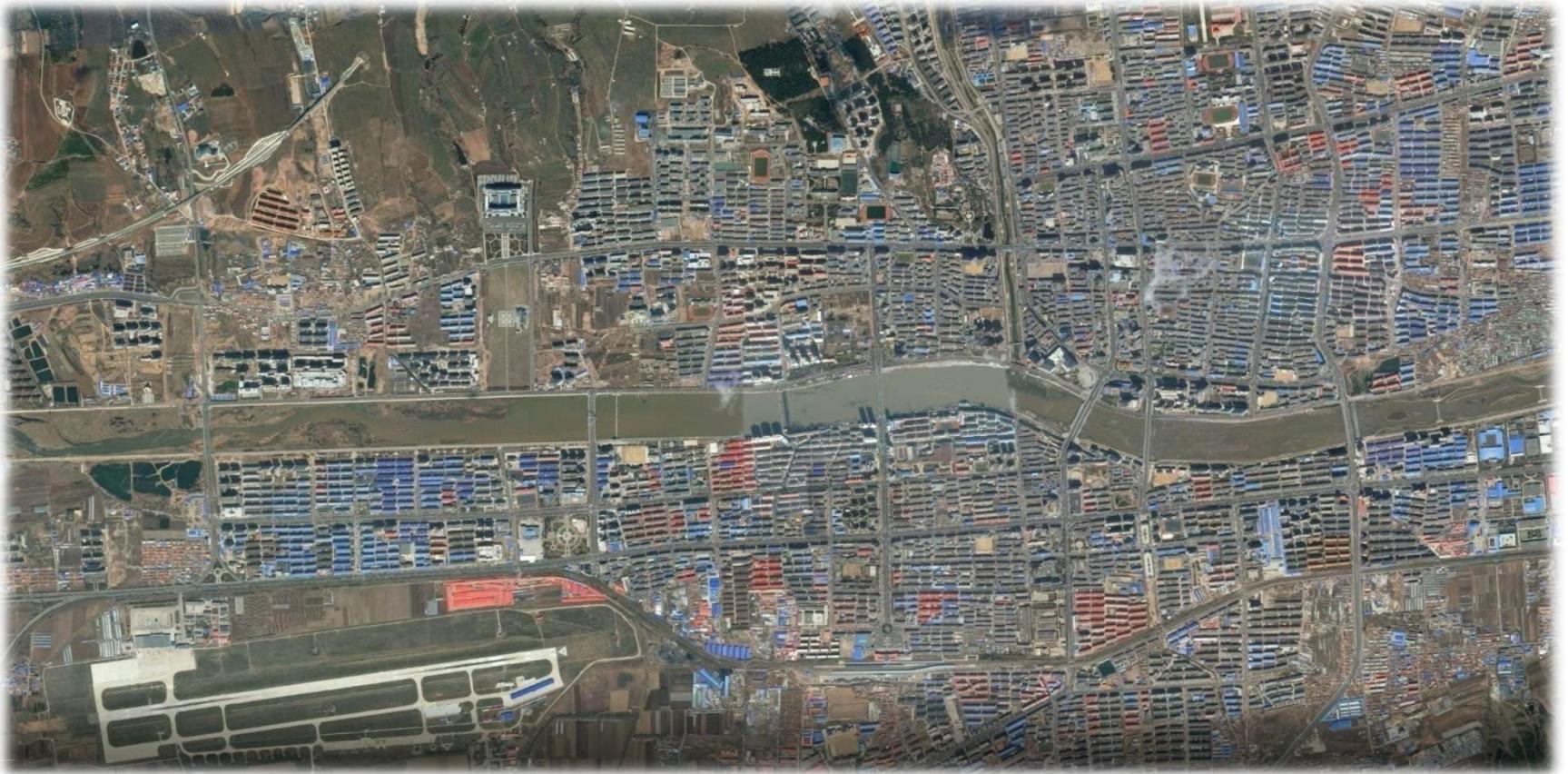
작품설명

이 작업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에 대한 재해석이다. 영역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물리적인 공간임과 동시에 문화적 정체성이 구별되는 공간이기도하다. 이러한 영역적인 공간은 이사와 이주가 빈번한 현대사회, 특히 도시화라는 현대문명이 시작되면서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생성, 확장, 전환의 과정을 거듭하면서 더욱더 다양화된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생산해낸다.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외국인들은 다년간 이 거대한 도시의 정착생활을 거쳐 자신들만의 집거구역을 형성한다. 이러한 외국인 집거구역들은 그들이 본연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백그라운드와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이 서로 혼재되어 다른 공간과 차별된 상이한 문화적 공간을 형성한다.

본인은 이 작업에서 지하철노선도를 통하여 서울이라는 공간을 외국인들의 집거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으로 나눈다. 본인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수도권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집거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은 18%정도를 차지한다. 이 수치에 근거하여 전시장 전체면적의 18%에 해당하는 면적을 A구역으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은 구역을 B구역으로 설정한다. 관객은 스마트폰에 다운된 앱을 통하여 이 보이지 않는 두 구역과 그 경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구역의 경계를 넘나들 때마다 해당 구역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 또 이 구 구역의 경계에서 본인은 허공에 외국인 집거구역의 지하철역 이름을 쓰는 포퍼먼스를 선보이는데 허공에 대고 빛으로 쓴 지하철역 이름들은 작가의 제스처를 통해서 확인하기 힘들지만 촬영되는 영상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작품제목인 <보이지 않는 경계>와도 어울린다.



<다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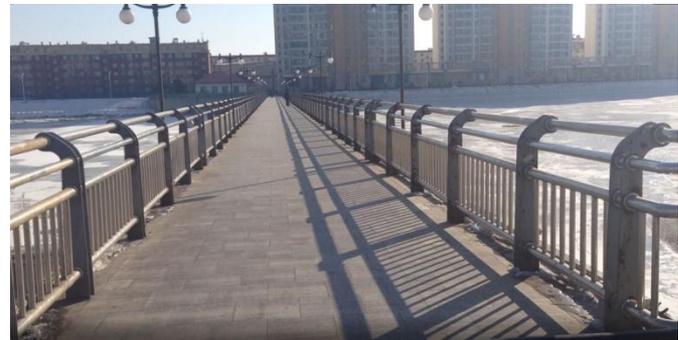


独白:

나는 중국 길림성에 있는 연길이라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태어났다. 여기서 차로 30분 남짓이 가면 중조국경을 마주할 수 있다. 이 도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는 '부르하통하'라는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 강 위에는 모두 7개의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그중에서 가장 허름하고 오래된 다리이다. 다른 여섯 개의 다리는 모두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독 이 다리만은 명칭이 없었다. 사실 이 다리는 너무 좁아서 차가 지나다닐 수는 없고 보행자나 이륜차만 넘나들 수 있다. 나는 태어나서 줄곧 이 강의 남쪽 이 다리와 멀지 않은 곳에 살았다. 그래서 이 다리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고 이 다리와 많은 추억과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다리의 유래는 나의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내용이 전부이다. 다리 위에는 폭이 좁은 레일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이 다리가 '일본 놈'들이 만든 다리이고 다리 위의 레일은 주로 석탄을 운반할 때 쓰던 '구르마' 레일이라고 하였다. 사실 '구르마'라는 용어는 일본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석탄을 운반하는 작은 수레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따라 이곳에 왔었고 이곳 또한 그 시기에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할아버지는 일부 용어를 일본어 그대로 사용하셨다. 사실 이 레일은 다리 위에만 있어 그 시작이 어디였고 끝이 어디였는지 알 수가 없다. 할아버지에 의하면 이 레일은 원래 탄광에서 기차역까지 이어지는데 해방되고 나서 다리 위에 있는 부분을 빼고 모두 철거되었다고 하셨다.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이 다리의 북쪽 멀지 않은 곳에 있어, 나는 고등학생 시절 이 다리를 많이 이용하였다. 하루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나는 등굣길에 자전거를 타고 이 다리를 지나갔다. 다리를 반쯤 지났을 때 나와 연령이 비슷해 보이는 한 여학생이 다리 난간의 바깥쪽에 서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갔다. 얼마 안가 뒤에서 "침병" 하는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여학생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급히 자전거에서 내려 다리 밑을 내려다보았다. 그 여학생이 강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다행히 다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나 그 여학생을 강에서 구조해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그 학생이 구조된 곳으로 갔다. 그 학생과 구조한 사람들의 대화에서 나는 그 학생이 한국에 간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중국에 돌아 올 수도 없고 본인이 갈 수도 없어 막막함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얼핏 들을 수 있었다.

2013년 1월 나는 작업 촬영을 위하여 이 다리를 찾았다. 그러나 그때 그 다리는 없어졌고 같은 곳에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새로운 다리가 생겼다.



<이동하는 물건>



<이동하는 물건>, 창원조각비엔날레, 2016, 성산아트홀(창원-한국)

이 작업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이주민들(작가포함)의 협업작업이다. 8개 나라에서 한국에 이주를 한 이주민들이 그들이 고국에서 가지고 온 물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 또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고 싶은 물건들을 뒤섞어 보여준다. 개인에게 있어 이주라는 경험은 문화적인 교집합이 형성되는 계기가 된다. 개인은 형성된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의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하면서 그 개인은 필연적으로 두 문화의 혼성적인 교집합으로 변화하게 된다. 또 그 개인이 원래의 문화권으로 이주를 감행했을 때 그는 경험했던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게 되는 셈이다. 어찌 보면 그들은 '문화적 번역자'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문화적 번역자'의 역할은 그들 개인들의 경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이 전시는 각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을 각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창원은 공업도시로서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많다는 것 또한 이 작업이 창원의 문화적 성격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 참 여:
- 몽골-KHISHIG DALAI
- 우즈베키스탄-PARK ANNA
- 방글라데시-MD.PARVEZ HOSSAIN
- 필리핀-MA.RIZA ANNA O.SUMAYOD
- 인도네시아-RISA NOVIANA
- 베트남-SEO NA RAE
- 캄보디아-JI DAHEE
- 중국-SHEN GUANG







역사가 기억되는 방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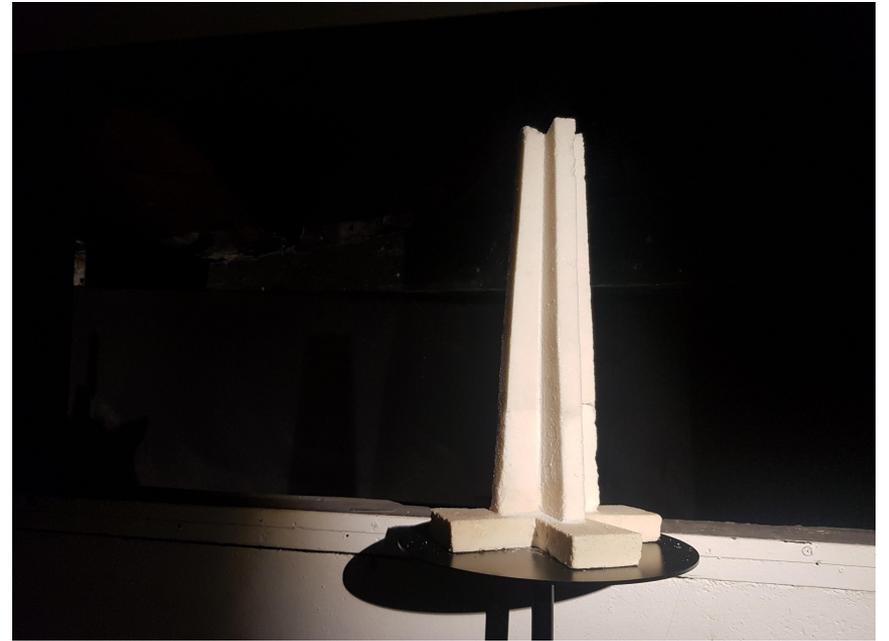
역사가 기억되는 방식(2020) 캡션: 가변설치(2개의 나프탈렌 기념비조각, 2개의 조명 등)

<역사가 기억되는 방식>은 연변 지역에서 전해지는 노래 구절 '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기념비!'에 대한 기억이다. 노래 가사처럼 연변의 마을마다 세워진, 다소 모호한 대상을 기리는 수많은 기념비를 작가는 한국전 참전자들을 만났던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한국전쟁 무명용사 기념비로 인식해왔다.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스스로가 역사에 대해 갖는 이러한 인식들이 한국전쟁 기념비 작업의 계기이다.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한민족으로서 실존하는 남북의 한국전 기념비 - '국립서울현충원'에 위치한 '현충탑(무명용사탑)'과 평양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북한은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칭함)에 위치한 '인민군열사추모탑' - 를 '나프탈렌' 조형물로 제작했다. 1960년대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묘지에 건립된 '현충탑(무명용사탑)'과 2013년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한국전쟁 전사자를 위해 조성한 국립묘지에 세워진 '인민군열사추모탑'은 작업에서 시공을 넘어 만나게 된다. 특유의 '불친절한' 냄새를 풍기며 상온에서 기체로 승화되는 나프탈렌은 '방부제', '탈취제', '살충제'로 사용되어 왔다. 한국전쟁의 기념비가 사자(死者)를 의도적으로 이 세계에 머무르게 하는 '방부제'이자, 권력을 가진 이들의 서사와 이념에 위배되는 다른 존재들을 억압하는 일종의 '탈취제', '살충제'로서 기능했다면, '나프탈렌'으로 전쟁 기념비를 재현하는 그의 시도는 기념비를 세운 권력과 건립 당시의 의도와 의미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냄새와 점점 불완전하게 변해가는 조형물을 경험함을 통해 사유하게 한다. 또한, 공간적으로 분리된 각 방에 설치된 남과 북의 전쟁기념비는 각 조각을 비추는 조명을 통해 거대한 그림자로 전시장 복도 벽에 투사되면서, 마주치는데, 이 확대된 허상 역시 점점 그 형태가 불완전하고, 흥물스럽게 변한다. '민족-국가'가 죽음을 기념할 때, 기억은 편향적 역사로서 기록된다. 경계인 신광은 남북한 양 국가 제체가 '경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건립한 한국전 기념비를 불쾌한 향을 내며 기체로 사라지는 나프탈렌으로 재현하면서 그 가치를 전복시켜, 그 '경계'를 만들어 온 힘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함께, '민족-국가' 서사가 빚겨나간 개개인의 기억을 소환하는 새로운 기억의 방식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글: 이아영



전시 이미지, 2020년, 아마도예술공간



전시 이미지, 2020년, 아마도예술공간